

취산 선생 전상서

박 양 규(산야, 아봐타 마스터)

박양규님은 취산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6개월여 동안 정성으로 수발을 해주신 분으로 선생님과 20년 지기입니다.

선생님,

몸을 두고 떠나신지도 50여일 가까이 되는군요.

생전에 많은 일을 하셨으니 지금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리라 짐작합니다.

돌이켜보면, T.M 명상 보급을 시작으로, 생명의 실상 40권 번역 작업에 결정적 역할을 하시고, 보름마다의 편지를 발간하시어 등대를 비추시었죠.

아봐타 교재의 거의 전부를 번역하시고 보급에 선구적 역할을 하셨으며, 미내사를 창립, 국제 신과학 심포지움을 주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짐작합니다.

선생님,

무엇보다도 따뜻한 인간미와 왕성한 호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정신적 갈등에 귀 기울이곤 하셨지요.

선생님,

몇 년 전 광양의 어느 목욕탕집 주인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범상치 않은(?) 발가벗은 우리를 보고 어떤 관계냐고 물었을 때 친구 사이라 했지요 선생님께서.

아리송한 표정의 주인 얼굴이 말입니다.

폭넓은 지식, 핵심을 꿰뚫는 지혜와 큰 깨달음을 성취하신 선생님이었지만 늘 겸손하셨지요.

선생님,

말년에 자금마련을 위해 러시아로 중국으로 동분서주 하시며 미내사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셨지요. 비록 충분한 자본을 남겨주시진 못했으나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열정을 남겨주셨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미내사 식구들은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는 또 뵙겠지만 박영철이라 불리우는 그 몸, 그 모습은 한층 재가 되어 영영 다시 못 뵙겠군요.

가끔 뜬금없이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99. 10. 23 산야 드림